

살라맛 뽀, 필리핀(고마워요, 필리핀)

* 'salamat po'는 필리핀어로 '고맙습니다'라는 뜻입니다.



1.필리핀 지프니



2.필리핀 마닐라 베이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열대의 뜨거운 태양이 방안을 가득 채운다. 출근시간까지는 좀 여유가 있지만 늘 일찍 집을 나선다. 이미 도로는 차가 가득하고, 게다가 오늘은 새로운 학생들과 새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다. 미리 도착해 학생들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과의 작은 약속이기도 하다. 집을 나가기 전 거울을 보면 다짐한다. '오늘도 잘해보자!'

고민 보단 go! 필리핀 생활의 시작



3.코이카 메디컬 미션



4.기초한국어 수업



7400여개의 섬나라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나는 2012년 1월 한국국제협력단 단원(KOICA)으로 필리핀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대학에서 국제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오래 전 스리랑카에서 코이카 단원들이 스리랑카 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막연하게 한국어 교육자의 삶을 꿈꾸었다. 그 후, 2년여 동안 배낭여행을 하며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여행을 끝낸 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를 공부하였고, 시험에 합격하여 빠른 시간에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한국어 교원이 포화 상태이고, 지위도 불안정해 국내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큰 장점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평소 작은 부분이라도 가진 것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던 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코이카 봉사단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 코이카 단원으로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어 그 곳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힘들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어 교사로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우선 순위 위에 있던 나라는 아니었다. 순간 고민이 시작되었지만, 그 고민은 길지 않았다.

‘그래 우선 가 보자!’ 결심을 굳히고 생각해보니 나라가 어딘지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어 교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다면 어느 곳이라도 괜찮았다. 그렇게 2012년 1월3일 한국어 교육 단원으로 필리핀에 도착했다.

나는 수도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40킬로 떨어진 불라칸이라는 지방에 파견이 되었다. 40도의 기온이 뿜어내는 열기가 가득한 불라칸. 이곳의 정부 기술교육기관인 기술 교육청에서 기초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을 시작한 나는 파견 기간 내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작은 소도시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한다는 것은 교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나는 걸어 다니는 한국홍보대사였다. 어디서나 환영받고, 무엇을 해도 잘한다 해 주는 현지사람들 덕분에 낯선 필리핀 생활을 아무 탈 없이 지낼 수가 있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뜨거운 날씨, 낯선 환경, 한국과는 다른 업무 스타일...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성격과 언제나 웃으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금씩 기존의 나를 내려놓으니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다. 매일 매일이 생존이었지만 그 시간을 겪으면서 나는 필리핀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다.

한국어 교육단원으로 2년 10개월 동안 16개 기수의 학생들과 1,600시간 수

업을 통해 기초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EPS TOPIK시험 대비반을 진행하였다. 한국어를 배워 한국으로 일을 가고 싶은 학생들, K-pop이 좋아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등등 이유는 달랐지만, 모두 한국어라는 공통분모로 만나 100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학교 곳곳에서 종알종알 한국말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맞춤법이 좀 틀리더라도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는 에세이들, 수업이 끝나면 마련해 주었던 파티 등등. 돌이켜보면 참 즐거운 기억들만 가득하다. 물론 코이카 단원으로 의료봉사, 고아원 봉사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할 수 있었다.



나는 한국어 교사다!

2년 10개월의 코이카 단원 생활이 끝날 즈음, 다시 진로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한국어 교사로서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보내고 싶었고, 계속 해외에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고 싶었다. 어느 날 우연히 ‘월드잡’을 뒤적이던 중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어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곁에 있던 친구는 나와 딱 맞는 자리라고 했다. 고민 없이 지원을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5. POEA 사전취업교육 수업 학생들과

이곳에서 나는 ‘사전취업교육’ 한국어 강사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난다. 필리핀은 젊은 나라로 20-30대의 비중이 높고, 많은 젊은이들이 필리핀 국내의 낮은 임금과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고용청(POEA)은 이 모든 업무를 맡아 총괄하는 노동부 산하의 필리핀 정부 기관이다. 한국은 필리핀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라 중 하나로써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PS)하에서 시행되는 한국어 시험과 기술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나의 주 업무는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이 한국 고용주와 계약을 하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 받는 마지막 과정인 ‘사전 취업교육’의 한국어 강사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 하지만...



6. 사전취업교육 수업

새롭게 일을 시작한 2015년 첫 해는 돌이켜보면 많이 힘들었다. 수업이 시작되면 대개 80여명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만난다. 한국에 간다는 기대감을 안고, 전국에서 모여든 필리핀사람들이다. 모두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지만, 얼굴 생김이 다르듯 한국어 수준이나 한국으로 가려는 이유 등 모든 것이 천차만별이다. 수업을 함에 있어 제일 큰 난관이다. 각기 다른 수준의 학생들을 80명씩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려니 처음 몇 주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목은 갈라지고 몸은 녹초가 돼 주말만 기다리곤 했다. 늘 몸살 약을 달고 살은 쭉쭉 빠지고...

또한, 필리핀에서의 근무 환경도 한국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수업을 위한 기자재나 시설 등도 낙후되어 있고, 그나마 제공이 바로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에어컨이 고장이나 찜통더위 속에 수업을 하기도 했다. 한번은 수업 중에 교실 천정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면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라고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그런 일들에 무뎌해 지거나 혹은 적응이 되었고, 무엇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학생들에게서 받는 좋은 기운들 덕분에 오늘도 수업에 나선다.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라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게 4년째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교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사, 상담자, 때로는 코미디언까지..한국어 교육자로서 수업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가족들과 떨어져 곧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과 각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어쩌면 그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한국인으로 친절하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이는 편이다.

나는 이곳에서 한국어 수업뿐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시행되는 EPS TOPIK의 진행 및 통역,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한 재취업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은 부분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필리핀에서의 생활

필리핀에는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다.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은 도시 어디서든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간간히 들리는 흉흉한 사건들 때문이다. 지금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싫으면 필리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혼자 이곳에 있는 딸이 걱정되어 하시는 말씀인거다.

한국만큼 치안이 좋지 않으니 분명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늦은 시간 밖에 나가지 않기, 낯선 사람들 조심하기...덕분에 일이 끝나면 늘 집에만 지내는 것이 현실이다. 걸어 다니며 찍고, 여행을 좋아했던 나는 어느새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필리핀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언제 어디서든 개인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나름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 때문이다. 수업이나 일을 하면서 영어가 훨씬 많이 사용이 되어 사실 불편함은 없지만, 필리핀어를 조금이나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장점이 되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필리핀어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과 조금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잘하겠습니다.

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과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필리핀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내는 것이 재미있다. 우연히 필리핀이라는 나라와 인연을 맺어 선택에 의해 벌써 4년째 일하고 살고 있는 필리핀.

가끔 친구들이 묻는다. ‘언제까지 필리핀에 있을거야?’라고.

아직 언제까지라고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내가 집중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필리핀에 머무를 이유는 충분하다. 앞으로 얼마가 될 지는 모르지만, 매일 매일을 즐겁고 열심히 지내 볼 예정이다.

필리핀에서 행복하고 능력 있는 한국어 교사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잘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고마워요, 필리핀...’이라고 작게 되뇌어본다.